

BASF, GM의 코팅 최고 협력기업

자동차 코팅부문 세계1위 재확인 ... 2002년 전세계 매출 21억유로

BASF가 2002년 GM(General Motors)이 선정하는 최고의 협력기업에 올라 명실공히 세계 1위의 자동차 코팅부문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GM은 1992년부터 매년 협력사 가운데 가장 우수한 품질과 실력을 보인 회사를 <올해의 협력사>를 뽑아 시상해 오고 있는데 GM의 구매·엔지니어링·제조·물류 등 각 부문의 임원들이 직접 협력사의 품질·서비스·기술·가격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BASF 집행이사회 멤버이며 BASF의 코팅사업부문 및 북미지역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클라우스 페터 뢰베씨는 “GM이 바스프를 가장 훌륭한 협력회사로 인정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위해 두 회사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북미의 바스프 코팅사는 바스프 코팅사업부문의 일원으로 자동차 코팅 부문에서 2002년 전세계적으로 21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BASF의 100% 자회사인 한국바스프는 한화바스프를 인수하고 동성화학의 폴리올 사업을 인수한 바스프우레탄이 효성바스프를 인수한 바스프스티레닉스와 대상의 라이신 사업을 인수한 바스프코리아를 합병함에 따라 출범한 국내 대표적인 외국인투자기업 중 하나이다.

한국바스프는 2002년 매출 1조1750억원을 기록했고 매출액의 약 45%를 중국, 동남아 등 해외에 수출하고 있으며 울산, 여수, 군산공장과 서울사무소에 약 1490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다. <김선환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4/29>